1타 2피 – 듀얼제품이 뜬다

metro

메트로 2014년 5월 19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무한도전 – 날카로운 정치풍자

단말기 출고가 내리고…
잇단 결합상품 내놓고…

상품·서비스 경쟁 아닌
보조금 싸움 우려 시각

‘고삐’ 풀린 이통사 진검승부 ‘시동’

SKT ‘착한 가족 할인’ LGU+ ‘한방에 yo’ 정지기간 KT만 웃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 20일 모두 정상화된다. LG유플러스는 19일부터, SK텔레콤은 20일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KT의 단독 영업기간 가입자 이탈이 컸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영업재개와 함께 결합상품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카드를 앞세워 가입자 회복에 나선다.

◆전략 핵심은 결합상품·출고가 인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영업재개와 함께 결합상품 강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앞세워 가입자 회복에 나선다.

SK텔레콤은 20일 영업재개에 맞춰 가족이 함께 SK텔레콤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월 가계통신비를 1인당 최대 1만원씩 아낄 수 있는 요금할인 프로모션 '착한 가족할인'의 시행과 함께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8종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착한 가족할인은 신규 가입이나 기기변경 또는 약정만료 후 재약정 고객이 SK텔레콤 휴대전화를 가족과 결합하면, 가입 요금제와 결합 인원 수에 따라 24개월간 휴대전화 월정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으며, 결합 순서에 따라 할인 금액이 늘어난다. 결합 회선 이용 고객이 월정액 7만5000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3000원~1만원, 7만5000원 미만 요금제 이용 시 월 2000원~7000원이 할인된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 이용자의 절반이 SK텔레콤 가입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결합 상품 가입과 혜택이 타사보다 훨씬 크다는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또 기존에 출시된 휴대전화 단말기 중 8가지 모델을 20일부터 인하된 출고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는 출고가 인하 모델과 관련, 갤럭시S4, 갤럭시S4 LTE-A, LG G2 등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유·무선 결합상품인 '한방에yo'를 앞세워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서비스 강화를 통한 가입자 유치에 나선다. 동시에 자사 전용 스마트폰인 LG GX와 LG G프로, LG G2, 갤럭시S4 LTE-A, 갤럭시 메가, 베가 아이언 등 9종의 LTE 스마트폰 출고가를 평균 20만원 가량 인하한다.

◆영업정지 기간 KT만 웃었다

1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가장 먼저 단독 영업에 나섰던 SK텔레콤은 14만4027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했다. 일평균 6262명의 가입자를 모은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일평균 8499명씩 총 18만6981명이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에 성공했다. 현재 단독영업중인 KT는 15일까지 일평균 1만1359명을 유지하며 총 21만5800명의 가입자를 새로 확보했다. KT의 경우 단독 영업기간이 남은 만큼 가입자 증가폭은 보다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번 영업정지 기간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KT로 나타났다. KT는 이미 단독 영업기간 13일만에 경쟁사로 이탈했던 가입자 14만8710명을 모두 되찾았다. 이후 증가한 가입자는 모두 경쟁사로부터 이탈한 가입자를 데려온 셈이다.

KT는 12년만에 무너졌던 시장점유율 30%도 이번에 회복했다. 반면 SK텔레콤은 가입자의 지속적인 이탈로 시장점유율 50%선이 무너졌다. LG유플러스도 가입자가 대거 이탈했다. 수성 또는 쟁탈을 위한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칫 상품·서비스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으로 또 다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예림 기자 ly0403@metroseoul.co.kr

5.18 참배객도 세월호 주모 5.18 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일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종이배를 제단에 올리며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변 이용 나트륨 추정방법 도입한다

정부가 '국민건강 영양 조사'에 소변을 이용한 나트륨 섭취량 추정 방법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국민건강 영양 조사 대상자 300명의 ▲24시간 소변 ▲단뇨 ▲8시간 야간뇨 등을 수집해 나트륨 섭취량을 계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영양 조사 나트륨 섭취 추정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국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나트륨 섭취량 상한치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일 나트륨 섭취량 조사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다. 그중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24시간 회상법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 대상자가 조사 하루 전 섭취한 모든 음식의 종류와 섭취량을 응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트륨 섭취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한 나트륨 섭취량 산출의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24시간 회상법을 통한 과거 기억만으로는 개인별 실제 나트륨 섭취량을 알아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나트륨 섭취량 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김현자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연구원은 "개선된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나트륨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재희 기자 hanul38@

더 많은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기사는 온라인 사이트 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문화가 있는 명동, 전시 퍼포먼스 18일 오후 서울 중구 가톨릭성당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명동에서 신묵구씨의 전시 퍼포먼스 중의 조각들을 모으다 가 펼쳐지고 있다.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은 '한국 천주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오는 8월까지 '문화가 있는 명동-자유와 같이 미래의 향상 염원'을 진행한다. /뉴시스

'세월호 임시국회' 개회…여야 진통 예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세월호 임시국회'가 19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됐다.

여야는 지난 15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20일), 긴급현안질의(20~21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27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27일) 등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후반기 원구성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특위 활동기간과 조사 대상, 청문회 일정, 위원장 등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검과 특별법 논의도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특별법과 특검이 가시적 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정기자 jhj@

北 23층 아파트 붕괴…사망 많을 듯

현지 당국 이례적 보도…"92세대 입주 추정"

북한 수도 평양의 고층 아파트 공사장에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해 상당한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지난 13일 평양시 평천구역의 건설장에서는 주민들이 쓰고 살게 될 살림집(주택) 시공을 되는 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군들의 무책임한 처사로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인명피해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13일 오후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1동의 23층 아파트가 붕괴됐다"며 "북한에서는 건물 완공 전에 입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아파트에도 92세대가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붕괴로 상당한 인원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생존자 구조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가 꾸려졌고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선우형철 인민내무군 장령(장성) 등의 간부들이 지난 17일 사고현장에서 유가족과 평천구역 주민을 만나 위로 사과했다고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4면에 사고 소식과 함께 한 간부가 주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사진을 실었으며,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주민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렸다.

/이대희기자 ydh@metroseoul.co.kr

사과하는 북한 간부 북한 노동신문은 18일자 4면에 지난 13일 평양시 평천구역의 살림집(주택) 건설장에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주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는 북한 간부의 모습. /연합뉴스

朴 대통령, 오늘 세월호 대국민담화

발표 후 1박2일 UAE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9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을 위로하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공무원 채용방식의 변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방안,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통한 국가재난방재시스템의 확립 등에 대한 복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를 마친 뒤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한다.

민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UAE에 건설중인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에 참석하기 위해 19일부터 20일까지 방문할 예정"이라며 "UAE와는 중요한 기술 수주가 많고 UAE 정부는 그간 대통령의 참석을 간곡히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미사 참석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에 참석, '희망'의 표시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로고송·무용 없는 '조용한 선거'

지난달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용한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지역위원회는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조용한 선거'로 치르기로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천 후보들은 지난 17일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조찬모임에서 유세치만 허용하고 로고송과 무용은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시종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지사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유례 없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인 슬픔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로고송과 율동을 이용한 요란한 선거운동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관련 업계들은 로고송, 유세 차량 등의 주문 규모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울상이다. /윤다해기자

사라진 오피스텔 중공을 앞두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충남 아산 한 오피스텔에 대한 철거 작업이 19일 이뤄졌다. 사진은 쌍둥이 오피스텔 가운데 한쪽 오피스텔이 무너진 모습. /연합뉴스

"카메라 팔아요"… 허위 글로 22억 챙겨

서울 마포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거액을 챙긴 혐의로 중국교포 안모(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2000여명으로부터 총 22억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해 10월께 경기도 군포시의 한 고시원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중국교포와 중국 인터넷 메신저 'QQ'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도모했다.

안씨는 300여개에 이르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수법과 금액 등으로 볼 때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윤다혜기자

콜밴·택시 불법영업 버젓이…64건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콜밴과 택시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64건의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명동, 남대문, 동대문 등지에서 단속을 벌여 택시 44건, 콜밴 20건의 불법 영업을 적발, 이 가운데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7명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택시의 자격증 미게시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 승차거부(13건), 택시 호객행위(9건), 콜밴 자격증 미게시(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콜밴과 택시 번호판에 숫자가 잘 보이지 않도록 반사 스티커를 붙여 단속을 피하려 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제기한 관광 불편사항 881건 가운데 255건(28.9%)이 콜밴과 택시 관련이었다"며 "관광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토지가격 부풀려 47억 빼돌려"

유병언 일가 횡령 의혹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토지 가격을 부풀려 47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8일 "검찰이 유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티알지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압수수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티알지의 최대주주인 유씨 일가가 소유한 트라이곤은 2012년 토지 2필지를 자회사인 티알지에 132억원에 매각했는데 원가를 107억원으로 공시했다"며 "대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25억원이나 챙긴 것이다. 티알지가 대주주의 땅을 높은 가격으로 사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특수관계자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9년 8월 법원 경매 기록을 확인한 결과 트라이곤의 감사보고서에 107억원(상품매출원가)에 산 것으로 돼있는 토지의 원가가 67억2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유씨 일가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85억 원짜리 토지를 132억 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유씨 일가와 관계 회사들에 대한 46개 금융사의 대출을 점검한 결과, 대출 자금 3747억원 가운데 90%가 은행 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금수원 내부 첫 공개 18일 오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언론에 공개한 경기도 안성 금수원 내부. 오른쪽 건물에 유병언 전 회장의 스튜디오가 설치돼 4년 동안 유 전 회장은 이곳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었다고 금수원측은 밝혔지만 이날 스튜디오 내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만취상태서 음주측정 거부 처벌못해"

만취한 운전자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켠 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제대로 걷지 못했던 점, 집에 데려갈 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았던 점 등으로 보아 노씨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었다고 본다"며 "이런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행위를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씨를 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이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잠이 들어 도로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노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노씨는 음주측정기에 침을 뱉는 등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윤다혜기자

<산복도로 스토리텔링 로드>

17개 테마 흐르는 초량이바구길

지난해 3월 조성 후 3만8000명 방문… 인근 개발로 더 활성화될 듯

산복도로 초량이바구길이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과 인근지역 개발로 더욱 진화될 전망이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초량이바구길은 부산역과 초량동 산복도로 마을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골목길에 다양한 역사적 소재와 이야기를 담아 조성한 산복도로의 대표적 스토리텔링-로드이다.

초량이바구길은 2011년 부산시에서 산복도로르네상스 1차연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3월 5일 완공해 현재까지 3만 8000여 명의 방문객이 '초량이바구길'을 다녀갔다.

부산시는 '초량이바구길' 코스에 2014년 융-복합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과거 이 지역 역사성을 살린 먹거리사업인 '6·25막걸리집'과 '168도시락 국', 이바구길을 찾는 탐방객과 공감체험자를 위한 숙소제공과 연계사업을 위한 '이바구충전소' 등 3개 시설을 지난달에 개소해 운영 중에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초량이바구길'의 주요 경로는 부산역광장~백제병원(남선창고 옛터)~담장갤러리~초량초교 초량교회~동구 인물사 담장~168도시락 국집~6·25 막걸리집~이바구충전소~168계단~김민부 전망대~이바구공작소~장기려 더나눔센터~유치환의 우체통~게스트하우스 까꼬막~마을카페(천지빼가리)로 총연장 1.5㎞ 길이에 주요 거점이 17개소로 짜여있다.

또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과 북항과 부산역 차이나타운 등 인근 초량지역을 연계한 창조경제 플랫폼 사업이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초량이바구길'은 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시행으로 북항 및 부산역 인근과 차이나타운 등 '초량이바구길' 주변에 다양한 사업과 변화가 기대돼 '초량이바구길'은 점점 더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균기자 htk@metroseoul.co.kr

수출 초보기업 팍팍 민다

시, 글로벌 컨설팅 등 지원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 초보기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목표시장 선정 및 해외시장 전략수립 능력 부족 등으로 수출 활로 개척에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이에 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과 전문컨설팅 및 수출경험이 풍부한 기업 멘토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을 실시하는 것.

수출 초보기업 지원사업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맡아 추진한다.

대상기업은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보유 등 수출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연간 수출액 30만불(소비재 10만 불) 이하 지역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으로는 △기업맞춤형을 원칙으로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컨설팅' △해외진출의 풍부한 경험과 해외마케팅 노하우 전수가 가능한 '기업 멘토링' △글로벌 전문 수행업체를 통한 '해외 유력바이어 발굴 및 현지 상담 주선' 등이다.

아울러 멘토·멘티 기업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수출에 따른 실질적인 궁금사항을 해결하고 기업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도 힘쓸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부산 지역중소기업의 간접수출을 직접수출로 전환·확대하고 수출역량 강화를 통해 소신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구직 나선 책가방 부대 1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채용박람회에 몰려든 고교생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이날 채용박람회에는 동남권 45개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참가해 사전매칭을 통해 선발된 7개 특성화고 학생 350여 명을 상대로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뉴시스

스크린도어 설치했더니 도시철도 안전사고 '뚝'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치한 승강장이 늘어나면서 부산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많이 줄었다.

부산교통공사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투신과 열차 운행방해 등 안전사고가 2건에 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에는 14건, 지난해에는 16건이 발생했다.

공사는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늘린 것이 안전사고를 많이 줄인 것으로 분석했다.

2012년 43.5%에 불과하던 안전문 설치율은 올해 70.3%까지 늘어났다.

교통공사가 305억원을 들여 1호선 11개 역과 2호선 11개 역에 추진한 승강장 안전문 확대사업이 올해 들어 마무리되면서 전체 108개 역 가운데 76곳에 안전문이 달렸다.

교통공사는 올해 말까지 1호선 6개 역과 2호선 5개 역에 추가로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매년 10~11개 역에 추가로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해 2016년까지 모든 역에 안전문을 단다는 게 교통공사의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제광고제 자원봉사자 모집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는 '2014 AD STARS'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5개 분야 120명으로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해외 동포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광고제 홈페이지(www.adstars.org)참조. 문의 051)623-5539

비행기서 호흡곤란 승객 구한 의학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이보람씨 80대 환자 응급처치로 생명 살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이 베트남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80대 남자 승객을 응급처치를 통해 구한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이보람(사진)씨.

이 씨는 지난 5월 초 연휴를 맞아 어머니를 모시고 베트남을 여행하고 귀국하던 길이었다.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께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으로 오던 베트남항공 소속 여객기가 1시간 남짓 비행을 하던 시각, 승무원의 갑작스러운 안내방송이 나왔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니 승객 여러분 중 의사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중국 측에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인천으로 향하던 계획을 취소하고 중국 상하이로의 항로 변경을 검토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 돌발적인 사고 소식에 기내 역시 일순간 혼란스러워졌다.

이때 안내방송을 들은 이보람 씨는 지체 없이 달려가 환자를 체크했다. 80대인 이 남성 승객은 고령에 고혈압 증세도 있었으며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

이 씨는 침착하게 환자의 맥박을 체크하고 산소호흡기를 밀착시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치했다.

그는 기내 바다에 앉은 채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약 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환자

를 계속 점검하며 간호했고, 당황해하던 환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시켜주며 헌신적으로 희생했다.

이 같은 선행으로 여객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환자는 응급요원의 도움으로 공항 내 응급센터에서 안정을 되찾은 뒤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80대 남성 승객의 딸은 가족 명의로 부산대 김기섭 총장에게 직접 쓴 편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별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을 희생해 아버님의 무사 귀가를 도와 준 이보람 씨에게 가슴 깊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보람 씨는 "의학도로서 수업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최대한 응용해 환자를 보살펴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의술로 사람을 구하는 진정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균기자 hk@metroseoul.co.kr

하동 섬진대교 기름 유출… 긴급 방제 18일 오전 7시2분께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섬진대교 인근 해상에 정박중인 화물선 장부선 A호(7천t)에서 해수 섞인 폐유가 유출돼 방제 작업이 진행중이다. /여수해경 제공

시민공원에 삼륜 전기자동차 뜬다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에 전기자동차가 등장한다.

전기자동차 제작업체인 섬지기업은 부산시민공원 순찰 및 관리용으로 삼륜 전기자동차 '쓰리윌' 5대를 최근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설공단에 납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납품한 쓰리윌은 2인용 'SJEKL 200' 모델로 사용자 안전을 위해 지붕으로 이어지는 전면 윈드 쉴드(Wind shield)와 캐노피를 갖췄다.

후륜 광폭 타이어, 추가 배터리, 안전범퍼 등을 장착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30㎞이며 한번 충전으로 연속해서 80㎞까지 운행할 수 있다.

섬지기업은 지난 3월에는 제주도의 대표적 관광지인 우도에 관광 레저용으로 쓰리윌 100여대를 납품했고, 이달 말에 55대를 추가 납품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일부 프랜차이즈에도 푸드트럭 형태의 쓰리윌 등 모두 200여대를 납품한 바 있다.

지역 아파트, 식지 않는 청약 열기

1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5일부터 분양을 시작한 수영구 민락동 '센텀 비스타 동원' 아파트는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84㎡ A형은 262 가구 모집에 1만2039명이 신청, 45.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3가구를 분양하는 84㎡ B형은 4123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20.31대 1에 달했다.

중대형인 109㎡ D형(163가구)도 755명이 청약, 4.6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에 앞서 14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수영구 민락동 'e편한세상 광안비치' 아파트도 평균 29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했다.

이 아파트 최고 경쟁률은 84㎡ D형이 기록했다.

75가구를 분양하는데 3388명이 몰려 45.17대 1에 달했다.

지난달 분양한 금정구 구서동 '구서 SK뷰'는 236가구 모집에 6755 가구가 신청,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64㎡ A형은 올들어 가장 높은 15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월에 분양한 남구 용호동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더 더블유'는 대형인데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1500만원대임에도 평균 경쟁률 6.3대 1을 기록했다.

동래구 사직동 '사직역 삼정그린코아' 아파트도 최고 경쟁률 145대 1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이처럼 올 들어 부산의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불황기를 거치면서 공급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신규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들이 우수한 입지를 선택하고 설계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가격상승 기대감을 높인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부산시장 후보들 본격 선거운동 돌입

6·4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이 오는 2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본격 선거운동 채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 캠프는 오는 21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18일 밝혔다.

서 캠프 측은 '일하는 시장, 일자리 시장'의 슬로건에 맞춰 선거대책위에 일자리위원회, 신공항추진위원회, 도시문화위원회 등 4∼5개의 공약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장에 앉힐 계획이다.

선거대책위원회를 기존 명망가 중심에서 실무인사 중심으로 구성, 공약 실천에 대한 서 후보의 강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5선의 김무성 의원과 국회의장에 도전장을 낸 정의화 의원 등 중량급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명예선거대책위원장에 위촉하는 등 여당 유력 후보에 걸맞은 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무소속 오거돈 후보 측은 캠프 이름을 '시민연대캠프'로 바꾸고 오 후보가 '범시민 단일후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오 캠프는 지난 17일 변호사, 의사, 교수, CEO, 봉사단체 회장 등 전문가와 대학생, 장애인 등 모두 30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특보단을 출범시킨데 이어 다주 초 새누리당의 20년 일당 독점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도 내주 초 진보 진영의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 고 후보가 진보 진영의 유일한 부산시장 후보임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각 후보들은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에도 오전 일찍부터 표심 공략에 나서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서병수 후보는 오전 8시 부산하프마라톤대회가 열리는 다대포해수욕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오후에는 해운대아파트 비상대책위 사무실을 찾아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청취하는 등 민원 현장을 직접 누볐다.

오거돈 후보도 부산하프마라톤대회장을 찾아 참가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표심 공략에 주력했다.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34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민주공원을 참배하고 기념식에 참가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최상 의료서비스 지원" 협약 좋은문화병원 병원장 문화숙은 지난 16일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원활한 진료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간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자 의료협약식을 체결했다.

보훈가족 무료 의치 '맞손' 부산지방보훈청 청장 유주봉은 지난 18일 부산보훈청 소회의실에서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최재호), (주)무학 강민철 대표이사, 소원의료재단 항상개원치과병원(이사장 이도경) 손의문 대표원장과 "보훈가족 무료의치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헉! 몸무게 77t 공룡 화석

아르헨티나 사막서 발견… 역대 최대 추정

몸무게가 77t에 길이 40m, 높이 20m인 역대 최대 크기로 추정되는 공룡의 화석이 발견됐다.

영국 BBC 방송은 이 공룡 화석이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 트렐레우 서쪽 250㎞ 지점 라플레차 근처 사막에서 농장 직원이 처음 발견됐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코끼리 14마리를 합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가장 거대한 공룡으로 알려진 아르젠티노사우르스보다도 7t 무겁다.

화석이 묻혀있던 암석의 연대로 보면 이 공룡은 9500만~1억년 전 파타고니아 초원에 살았고 후기 백악기 티타노사우르스의 새로운 종으로 추정된다.

/이국명기자 kmlee@

"보코하람은 알카에다"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 전쟁 선포… 공동 대응책 마련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최근 200여 명의 나이지리아 여학생을 납치한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니제르, 카메룬, 차드, 베냉 등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안보 정상회의에서 정보 교환 등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정상들은 납치된 여학생을 찾기 위해 좀 더 조직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고 국경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굿럭 조너선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여학생들을 납치한 보코하람은 서아프리카의 알카에다가 됐다"며 "서아프리카가 힘을 뭉치지 않으면 이 테러리스트들을 없앨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치된 소녀들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나이지리아군 2만 명을 수색 활동에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상 회의에는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과 회의를 주선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미국·영국 관리들이 참가해 보코하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아프리카 정상들은 보코하람과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대테러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보코하람과 그 분파인 안사루 지도자에 대한 유엔 제재 논의도 이뤄졌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은 이번주 유엔 안보리에 제재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유인 정찰기와 약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나이지리아에 보내 수색 작업을 돕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지원팀을 파견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보코하람은 카메룬 국경에 인접한 나이지리아 학교를 급습해 여학생 200여 명을 납치했다. 보코하람은 올해 들어서만 테러로 약 2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000년대 초반 활동을 시작한 보코하람은 현지 하우사어로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멕시코 웨이터 337명 기네스북 도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17일(현지시간) 웨이터 337명이 쟁반 위에 물컵과 맥주캔을 올린 채 달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웨이터 경주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대리모, "차라리 양성화하자"

metro Mexico

불법 출산 증가 논란

Madres subrogadas, en venta y sin regulación

최근 멕시코에서 대리모를 통한 불법 출산이 증가, 논란이 일고 있다.

멕시코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리모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타바스코주와 시날로아 지역만 대리모를 허용한다.

하지만 '어둠의 경로'를 통한 대리모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시술 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대리모 시술을 해 주는 사설 병원이 넘쳐 대리모 출산 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차라리 대리모 제도를 양성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혁명당(PRD)소속 카를로스 에르난데스 의원은 최근 멕시코시티 시의회에 '대리모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불법으로 둘수록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법의 테두리 안으로 이들을 불러내 피해를 최소화 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카를라 모랴 기자·정리=조선미기자

발바닥, 발가락 통증?
더 이상 참지마세요!

발바닥에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하거나,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하게 전기통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간신경종(몰톤씨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지간신경종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갈라지는 부분인 발바닥의 앞쪽에 무언가 이물질을 한 겹 붙여놓은 것처럼 느낌이 둔감하거나 마치 모래를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각이 이상하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리고 심하면 콩콩 미저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원에서 엑스선을 찍어보고 허리가 원인인가 싶어 허리 MRI도 촬영하고, 혈관문제인가 싶어 혈관조영술을 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걷는 것미저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현대인의 발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모든 뼈 중 5분의 1이 몰려 있고 평생토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인다. 최근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이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쁜 발-작은발' 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씬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박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서 눌려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서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여성 분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 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치료해

부산에서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등 족부관련질환을 전담하여 케어하는 족부클리닉을 운영중인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인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오묘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한 곳만 이상이 생겨도 보행에 필요한 균형을 잃고 연쇄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며 "발가락은 한 번 변형되면 다른 발가락을 변형시키고 무릎, 허리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형과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과 발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손과 달리 발은 체중을 부하하여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행을 편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치료해야 하며, 발이 불편하면 보행이 틀어지므로 무릎, 엉치, 척추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

디스크, 하지정맥류, 혈관장애 등으로 오인, 오랜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발가락과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중에서 체중의 압박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막연히 발이 저리다고 하는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을 잘라내지않고, 절골술을 시행, 지간신경종의 원인을 제거한다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중족골 사이에 끼어서 붓게 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통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의 이준호 원장은 지간신경종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법을 시행하여 수술 부작용을 더 줄이고, 재발을 걱정도 덜어준다. 그러면서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market index <당일>

코스피	2013.44	(+3.24)
코스닥	557.59	(-4.16)
금리	2.84	(+0.01)
환율	1025.00	(-1.00)

월드컵보며 다른 채널 녹화 KT스카이라이프는 19일부터 두개 채널을 동시에 시청하면서 녹화할 수 있는 스마트 개인녹화장치(PVR) 서비스를 출시한다 /KT스카이라이프 제공

카드업계 영업재개, '총성없는 전쟁'

만회 위한 총력전… 신상품 출시 잇따라

올해 초 고객 정보 유출로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던 국민·농협·롯데카드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카드업계의 총성없는 전쟁이 다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들 카드3사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상품 출시와 사은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사과를 씁니다'라는 기업PR광고로 사과를 전 KB국민카드는 기존 상품인 훈민정음카드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포인트가 특화된 신용카드를 출시하는 한편 고객 사은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모든 업무를 고객 입장에서 고객 가치 중심으로 개선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객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근리 스포츠 후원 활동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농협카드 역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바탕으로 영업 재개 시점에 맞춰 신상품 2종을 출시한다. 전월 실적이나 횟수·한도 등 복잡한 조건 없이 할인받을 수 있는 범용신용카드와 해외 할인 혜택을 집중시킨 '글로벌 언리미티드 카드'가 바로 그 주인공.

농협카드 관계자는 "글로벌 언리미티드 카드는 업계최초로 출시된 해외전용카드이며 해외직접구매 고객들에게 특히 유용한 카드"라며 "올해 처음 출시되는 상품이니 만큼 고객에게 좀 더 유익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부통제관의 직급 신설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고예방을 방지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 청구할인과 쿠폰혜택 확대와 신규 및 기존 고객을 위한 이벤트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롯데카드는 금융보안통합 솔루션을 도입해 보안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회원을 위주로 모집인을 재충하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영업재개를 대비해 고객 신뢰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보안강화와 업무 프로세스 재정비,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정보 유출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지난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던 타 카드사들도 신상품 출시 등으로 맞불작전에 나섰다.

하나SK카드는 이달 초 하나은행과 손잡고 장보기에 특화된 '메가마켓 체크카드'와 모바일 혜택을 강화한 '배달의민족 마음만부자 카드'를 선보였다.

신한카드는 기존 상품을 업그레이드 한 새로운 리뉴얼 상품을 기획 중이며 우리카드는 최근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약을 맺고 군인연금 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우리군인연금증카드'를 출시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여파와 최근 발생한 연카드 명의도용사고 등 때문에 카드사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지는 않지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신규상품 준비와 마케팅 강화 등의 재정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다란기자 alwls@metroseoul.co.kr

11번가 '마트 할인의 끝' 기획전 11번가는 18일부터 25일까지 주요 생필품을 반값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트 할인의 끝' 기획전을 실시한다 /11번가 제공

공기업 임원 30% '관피아'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대형 공기업의 직계 감독 부처 낙하산 비중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2~2013년 국내 시장 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의 기관장과 상임·비상임 이사, 감사 등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수는 333명이었고, 이중 34.5%인 115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특히 관료 출신 임원 중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56명(48.7%)으로 절반이나 됐다.

기관장의 관피아 비중은 일반 임원보다도 높아 전체 29명(한국조폐공사 공석)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직속 부처나 연관부처에서 내려온 관료였다. 특히 이들 15명 중 12명(80%)이 직속 감독부처 출신이었다.

관피아 비중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울산항만공사로, 임원 10명 중 7명이 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 등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었다.

한국감정원이 11명 중 7명(63.6%)으로 2위에 올랐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0%)→해양환경관리공단(50%)→한국공항공사(46.2%)→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조폐공사(45.5%)→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44.4%) 등이 뒤를 이었다.

관료 출신 임원 중 직속 부처 출신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주택보증(관료 출신 임원 수 4명), 여수광양항만공사(3명), 한국석유공사(3명), 한국관광공사(2명) 등 4곳이다. 관료 출신 임원 100%가 해수부·국토부 출신이었다. /정해균기자 [illegible]

로또복권 제598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4	17	24	33	38	45	2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633,986,571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44,470,925
3등	5개 숫자 일치	1,003,281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8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회·편집인	김광혁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겸 대표	김덕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08-2100
독자센터	02)721-9881

등록일 2005년 9월 2일 등록번호 서울다06306

박원식 한은 부총재 사퇴, 후임 촉각

임기 1년 남겨놓고 물러나…장병화·김재천씨 등 거론

박원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지난 9일 전격 사임한 가운데 후임 인사가 언제쯤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부총재는 임기 만료를 11개월 앞두고 사임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지난 4월 초 취임한 이주열 총재의 인사와 조직 운영 등을 위해 용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82년 한은에 입행한 그는 2012년 4월 부총재를 맡았다. 임기는 3년으로 내년 4월까지였다. 한은법 개정으로 금통위원을 겸임하는 부총재 제도가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중도 사퇴한 사례는 처음이다.

박 부총재는 사내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이런 결정은 한은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가 떠난 뒤에도 모든 분이 한마음이 돼 조직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유지함으로써 한은 위상을 더욱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퇴임식을 사양하고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간 한은 안팎에서는 "이 총재가 취임하면서 중도 사퇴할 것"이란 얘기가 줄곧 나왔다. 두 사람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김중수 키즈'의 대표적인 박 부총재의 사퇴로 이 총재의 조직 개편과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후임에는 이 총재가 부총재를 맡던 시기에 부총재보를 지낸 장병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과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장세근 전 부총재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 사장과 김 부사장은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건강이 회복된 장 전 부총재보는 대학 강의도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총재의 인사 혁신 태스크포스(TF) 총괄팀장을 맡은 이흥모 국장의 부총재보 발탁설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국·과장 등 정기인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면서 "정확한 시기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원화 강세에 수혜주 '고공행진'

아세아시멘트 40%↑·포스코 31만원대 회복

올 들어 원화가 가파르게 절상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원화 강세 수혜주의 주가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원화 강세로 원가 절감 효과가 있는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하락 국면으로 들어서 지난 7일에는 5년 9개월 만의 최저 수준인 1020원대로 진입했다.

연초 대비 원화 절상폭은 3.3%이다. 환율 하락세가 두드러진 지난달부터만 놓고 보면 4.1%로 글로벌 주요 통화 중 가장 절상폭이 높았다.

이에 원화 강세로 비용이 절감되거나 이익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세아시멘트의 주가는 올 들어 40% 넘게 상승했다.

시멘트 값 인상 기대감과 함께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의 가격 부담이 환율로 인해 줄어든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

최석원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올해 유연탄 가격이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원가의 40% 비중을 차지한다"며 "올해 원·달러 환율이 4.1%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순이익이 4%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철강 업종도 최근 원화 강세에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

포스코의 주가는 지난 3월 초 장중 26만8500원으로 52주 최저가까지 빠졌다가 최근 31만원대를 회복했다.

세무조사와 자동차 강판 단가 인하, 엔화 약세로 인한 외화환산차손 발생 등의 악재에 약세를 거듭하던 포스코의 주가는 지난달 7거래일 연속 오르는 등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박애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한국 경제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고 외화부채가 많은 업종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방글라데시 한류 졸업식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소재 지방정부교육개발원에서 17일 부영그룹과 방글라데시 정부가 한국형 졸업식 시범행사를 개최했다. /부영그룹 제공

수출입銀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은 희망씨앗 대학생 봉사단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은 희망씨앗 대학생 봉사단 140명은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14팀으로 나뉘어 직접 기획한 봉사활동을 연중 6회 이상 펼칠 예정이다.

수은은 전국에 소재한 본·지점과 연계해 대학생 봉사단의 활동을 전면 지원하며, 7개월간의 팀별 과제가 끝나면 우수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해외 봉사활동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KB은행, '마음편한통장'

KB국민은행이 19일부터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하는 'KB마음편한통장'을 판매한다.

이 통장은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출시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과 연계한 1호 상품이다.

신규시 보험 가입에 동의한 경우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제공하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6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그 이후부터는 직전 6개월 동안 일정 조건의 실적(카드결제/급여이체/가맹점결제/연금수령)이 1번 이상 발생한 경우 6개월 단위로 보험을 갱신한다.

부가서비스인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피싱 또는 해킹 금융사기를 통해 부당하게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사용된 경우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금융사기에는 스미싱·파밍·메모리 해킹을 포함한다.

분양 성공 "눈높이 맞춰라"

동탄2신도시 젊은층·위례신도시 중년층 타깃 효과

주택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분양에 앞서 지역민들의 취향부터 파악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마케팅을 펼칠 때 분양에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은 20~30대 젊은 층의 거주가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감각적인 설계를 선보여 잇달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최근 공급된 '신안 인스빌 리베라2차'는 어린 자녀의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물질을 줄여주는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한 점을 강조해 평균 3.74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일주일 만에 100% 완판을 기록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은 중소형 아파트의 공간 활용성을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반대로 강남권 입지의 위례신도시는 관심 고객 대부분이 잠실을 비롯한 강남 일대에 거주하는 40~50대인 점을 감안, 고급화 마케팅에 역점을 둬 성공한 경우다. 지난 2월 분양한 '위례2차 엠코타운 센트로엘'은 내부 인테리어를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럽게 꾸몄다. 주방에 흔히 쓰이는 인조 대리석 대신 내구성이 뛰어난 강화대리석을 깔았다.

위례신도시 A3-6b블록에서 분양을 앞둔 신안 인스빌 리베라 역시 전용면적 98~101㎡ 중대형 아파트 실내마감재와 가구에 E0등급 고품질 제품을 사용, 고품격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평택에서는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평택의 명문학군이 밀집된 비전동과의 인접성을 강조한다. 반도건설이 소사벌지구에서 선보일 '소사벌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고교생들의 수능준비와 내신향상을 위한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박선옥기자

쿨비즈로 시원한 여름옷 현대산업개발과 계열사 현대아이파크몰은 5월19일부터 9월까지 쿨비즈 복장 착용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아이파크몰 제공

1억 모으기, 중위험·중수익 상품 주목

금융가 사람들

■ 이원홍 하나은행 강남PB센터 부장

주요 포털사이트에 '1억'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1억원 모으기'가 자동완성어로 뜬다. 재테크의 첫걸음으로 꼽히는 종잣돈(seed money)으로 1억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목표했던 돈을 모아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원홍(사진) 하나은행 강남PB센터 부장은 이런 때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위험이 없는 은행예금은 금리가 2%대에 불과하고, 고수익 상품은 원금을 날릴 위험도 크다. 적당한 수익을 거두며 일정 부분 위험은 감수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원홍 부장은 "지수형 ELS, 롱숏펀드, 하이일드펀드 3가지가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꼽힌다"며 "수익률은 평균 6~7% 정도로 은행 금리보다 높고, 변동성이 4% 내외로 존재하지만 주식형펀드가 10%대의 두 자릿수인 것과 비교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ELS의 경우 종목형으로 할 경우 수익률은 10%가 넘는데 반해 10개 중 3~4개는 원금 손실이 있었다"며 "지수형 노낙인상품도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손실 사례는 없고, 이론적으로도 종목형보다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우리나라가 저성장·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만큼, 더 이상의 고수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중수익이 최선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원홍 부장은 "예전처럼 은행에만 돈을 맡겨둬도 충분한 수익을 올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6% 전후를 목표수익률로 정하되, 투자기간은 길게 해 복리효과를 노리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세상에 없던 하이브리드 車 나왔다

■ 인피니티 Q50 하이브리드

364마력 엔진+ 50kW 전기모터 조합 · 민첩하고 날렵한 핸들링 '일품'

인피니티는 전통적으로 연비보다는 고성능을 추구하는 브랜드다. 연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두고 오로지 강력한 엔진 성능을 바탕으로 위도적인 주행성능을 보여주는 데 주력해왔다.

그런 인피니티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모델이 Q50이다. 가솔린 터보와 디젤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등 3가지로 등장한 이 차는 한국에서 디젤과 하이브리드가 우선 출시됐다. 소비자들의 초반 반응은 디젤에 집중되고 있다. 벤츠 엔진의 신뢰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뛰어난 연비가 인기의 비결이다. 올해 2~4월 동안 디젤이 640대, 하이브리드가 16대 팔릴 정도로 디젤의 인기가 두드러진다.

지난 3월 열린 Q50 시승회에서는 디젤 모델 위주로 다뤄서 최근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봤다. 역시 가장 큰 차이점은 정숙성이다. 저속과 정지 시에 엔진이 정지되고 모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디젤 모델의 진동과 소음은 찾아볼 수 없다.

가속 반응은 동급 경쟁자 중 가장 빠르고 인상적이다. BMW 액티브 하이브리드3도 상당히 빠른 편이기는 하지만 Q50 하이브리드의 반응이 좀 더 즉각적이고 강렬하다. V6 3.5ℓ 364마력 엔진과 50kW의 전기모터를 조합한 Q50 하이브리드는 306마력 엔진과 40kW의 모터를 조합한 액티브 하이브리드3를 압도하고 실제 주행에서도 이를 입증했다.

디젤보다 가벼운 엔진은 뛰어난 핸들링을 완성하는 밑바탕이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델에 장착되는 다이렉트 어댑티브 스티어링이 민첩하면서도 날렵한 반응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의 쾌감을 맛보게 해준다.

인피니티 Q50은 인테리어의 질감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사진 왼쪽 아래). 파워트레인은 V6 3.5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로 구성돼 있다(오른쪽 아래).

실내에서는 인피니티 인터치 시스템이 눈에 띈다. 핸드폰을 지와 블루투스로 연결할 경우, 도착한 문자메시지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 등의 SNS도 차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Q50은 가속력이 뛰어나면서도 연비를 두 자리 수로 향상시킨 점이 돋보인다. 표시 연비는 도심 11.6km/ℓ, 고속도로 14.1km/ℓ, 복합 12.6km/ℓ로, 이전 모델인 G37에 비해서 약 30% 높을 뿐 아니라 배기량이 더 낮은 G25보다도 뛰어나다. 경쟁자인 BMW 액티브 하이브리드3는 도심 11.0km/ℓ, 고속도로 14.2km/ℓ, 12.2km/ℓ다. 시가지를 주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8.5km/ℓ를 기록했다.

Q50은 인피니티가 중시하는 강력한 성능에 경제성을 더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액티브 하이브리드3보다 가속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1800만원 저렴한 6760만원이다. 인피니티의 남은 과제는 브랜드 밸류를 더 끌어올리는 일이다. 한국에서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한다면 더욱 승승장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의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한 줄 평가: 빠르고 조용하다. 편들하은 덤 같 하다 ▲평점: ★★★★★(별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기아차, 펀키아 디자이너 8기 모집

기아자동차가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아차 공식 블로그 '펀키아(http://fun.kia.com)'를 통해 대학생 마케터 '펀키아 디자이너(FunKIA Designer) 8기'를 모집한다.

국내 대학생(2014년 7월 졸업예정자 제외)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모집기간 동안 펀키아에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고, 기아차 공식 페이스북의 펀키아 디자이너 모집 포스팅을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공유하면서 펀키아 디자이너 8기에 도전하는 자신의 각오, 활동 계획 등을 100자로 작성하면 된다.

기아차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거쳐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활동할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펀키아 디자이너들은 5명이 1개 팀으로 총 3개 팀을 이뤄 기아차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체험하며 관련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으로 제작된 영상, 사진 등은 '펀키아'의 콘텐츠로서 기아차 공식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실제로 펀키아 디자이너 5기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펀키아 프러포즈' 영상의 경우 기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조회수가 400만 건을 넘어섰다.

기아차는 이번에 모집하는 펀키아 디자이너 8기에게 정기적인 마케팅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기아차 마케팅, 광고, 상품 담당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예비 마케터로서의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또한 기아차는 펀키아 디자이너 8기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펀키아 디자이너로 선정된 인원에게는 해외 마케팅 현장 취재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펀키아 디자이너는 대학생이 기아차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직접 진행하고 현업 담당자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2010년 10월 '펀키아 디자이너 1기'를 모집하고 젊고 창의적인 대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이외에도 유네스코(UNESCO)한국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세계 청년 봉사프로그램 '기아 글로벌 워크캠프', 환경을 주제로 한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에코 다이나믹스 청소년 원정대' 등 미래 주역들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유스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의택기자

<국산차·수입차 차종별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베르나	710	690			
	아반떼HD	870	900			
	YF쏘나타	1,340	1,410	1,330	1,750	1,950
	그랜저HG			2,210	2,440	2,780
기아	프라이드	610	750	720		
	포르테	830	1,120	1,060	1,160	1,220
	스포티지R		1,370	1,830	2,050	2,150
	쏘렌토R	1,820	1,890	2,020	2,210	
르노삼성	올뉴SM7			2,160	2,260	2,710
폭스바겐	골프6세대	1,510	2,090	2,200	2,510	2,620
	티구안	2,430	2,650	2,950	3,300	3,67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대한노인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퇴행성 관절염 환자 후원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 전개

#광명에 사는 김씨(70)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과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김씨는 음식점 서빙과 배달을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고된 일에 무릎 통증도 자주 느꼈지만 가족들 생각에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 병원을 찾은 김씨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말기 상태를 진단받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수술이 두려웠지만 통증이 줄고 무릎 기능이 좋아진다는 말에 수술을 받게 됐고 수술한지 2년이 지난 현재 김씨는 통증 없이 무릎의 기능도 회복돼 걷거나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얼마 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첫 여행을 떠나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기도 했다.

극심한 통증의 퇴행성관절염 '말기', '인공관절 수술 후원'로 통증 줄고 기능 회복
전화·우편·이메일로 본인 외 대리인도 신청 가능

◆정확하고 안정적인 인공관절 수술, 퇴행성관절염의 해결책

퇴행성관절염은 지속적인 관절 사용으로 인해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퇴행성관절염을 조기에 발견하면 줄기세포 연골재생술 등을 통해 관절을 보존할 수 있다. 하지만 연골이 닳아 없어져 무릎이 자주 붓고 통증이 심해 걷기가 힘들며 다리가 'O자형'으로 휘는 말기에는 인공관절로 연골을 대체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인공관절을 이식해 통증을 없애고 무릎 기능의 회복을 돕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 기법이 발전하면서 환자 무릎에 최적화된 '맞춤형 인공관절' 등이 도입돼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술이 가능해졌다.

◆인공관절 수술, 비용 높아 저소득층 환자들에겐 큰 부담

이런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을 이식하는 큰 수술이다보니 비용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 쪽 무릎만 수술받아도 약 250만~300만원이 들며 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선수에는 대략 500만원 정도가 든다니 또 입원비와 간병비, 검사·진료비가 추가로 든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본인 부담금은 두 배로 증가한다. 이처럼 결코 저렴하지 않은 수술 비용 때문에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대한노인회 저소득층 환자 돕기 위해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 나서

이에 대한노인회(회장 이심)가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위해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 대상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1종, 차상위계층)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다.

나병기 대한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 단장은 "우리나라 노인의 80%가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무릎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캠페인을 주최·주관하는 대한노인회는 1969년에 설립돼 약 300만 명의 회원을 총괄하는 사단법인으로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노인생활 소식지 발간사업, 노인취업지원본부 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혜인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캠페인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전화 및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본인 이외의 대리인이 신청해도 된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퇴행성관절염 환자 대한노인회(245개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전화 1661-6595(대한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

우편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43(대한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 담당자' 앞

이메일 oki6595@naver.com (캠페인 담당자)

홍영미 교수, 대한고혈압학회 '우수 연구 과제' 선정

홍영미(사진)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대한고혈압학회로부터 학술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고혈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홍 교수의 '5년 프로그래밍에 의해 유발된 고혈압 백서에서 코자 XQ(Cozaar XQ) 투여에 의한 혈압 감소 및 유전자 발현 변화'라는 연구가 우수 연구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소아과학회, 대한심장학회, 소아고혈압연구회 등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학회에서 우수 초록상,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유대용기자

갈더마코리아, '365일 피부 건강' 캠페인

갈더마코리아(대표이사 박종범)가 오는 24일과 31일 양 일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갈더마와 함께하는 365일 피부 건강 캠페인' 봄 시즌 이벤트를 실시한다.

회사는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야구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건강한 피부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 및 자기관리 습관의 노하우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스트레이트존 게임 등을 준비해 이색 체험의 기회와 함께 미이스킨 풍선 등의 풍성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갈더마코리아는 지난해 시작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피부 건강을 위한 정보와 우수한 의약품을 꾸준히 소개할 방침이다. /김학철기자 kimc0614@

비염 치료가 성적관리 '첫 걸음'

어린이·청소년, 식습관 개선·전문의 찾아 치료해야

일교차가 커지면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늘고 있다. 그중 어린이, 청소년 환자들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집중력 저하, 잦은 두통 등을 호소하며 공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비염 치료해야 공부에 집중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랜 시간 생활하는 학교는 여러모로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산재한 공간이다. 건조한 공기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이때 콧 속으로 이물질이 흘리거나 공기가 순환하지 못해 비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단기간 집중력이 필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은 더욱 심해진다. 게다가 간헐적으로 두통이 나타나도 비염을 의심해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성적관리에 어려움을 받는 경우라면 비염을 치료해 공부에 집중하기 쉬운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식습관을 교정해야 한다. 먹거리는 알레르기 비염을 좌지우지 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단 음식을 피하고 날씨가 덥다고 생삼이 넘친 얼음이나 냉음료를 즐기는 습관도 삼가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피로를 해소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근본적인 비염 치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김남선 영동한의원 원장은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지 않다고 방치하면 축농증으로 진행돼 만성코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지긋 지긋한 허리, 목 디스크 진화된 고주파 치료로 10분이면 끝

말기 디스크 질환도 10분 정도 고주파면 OK!
환자 증상·질환에 따라 전문의가 먼저 진단 후 맞춤형 치료 실시

이승주 오른쪽)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과 [illegible]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유명 배우 S양의 아버지 S씨는 어느 날 아침 양말을 신다가 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면서 오른쪽 다리 당김과 통증으로 근처 병원을 찾았다.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S씨는 병원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이 두렵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이에 S양과 같은 방송인 런닝맨에 출연 중인 방송인 G씨의 소개를 받아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방문했다.

이승주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은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로 S씨의 상태를 진단하고 강남조이스병원에서 국내 유명 연예인들 및 세계인들이 치료받았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이후 상태는 호전됐고 S씨는 치료 답일 퇴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불후의 명곡 및 히든싱어 우승으로 화제가 된 국내 최고 보컬 가수 휘성도 군 복무 중 악화된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강남조이스병원을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이 원장은 S씨와 마찬가지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로 휘성을 치료했으며 휘성 역시 통증이 사라져 현재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런닝맨에서 활동 중인 가수 김종국의 가리도 휘성과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다가 강남조이스병원에서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말끔히 해소돼 방송 활동 및 런닝맨 촬영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

◆질환 치료와 환자 회복이 중점

이처럼 3년 전부터 강남조이스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와는 다른 진화된 치료법이다. 국소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병변 부위를 직접 관찰하며 치료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찾아 이유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 후 초기 및 중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아픈 부위에 간단히 신경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실시한다. 특히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선진 체계화했다. 또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질환 환자는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통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아울러 강남조이스병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 잡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근육·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근처 본원 외에 외에 고대역,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안근에 목·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 다리·측만증 등) 전문치료 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개설해 합리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 홍대점 02)336-2200, 여의도점 02)786-2200

/황재용기자 [?]

한경희생활과학, '상쾌한(HAAN)' 출시

자동 제습 시스템으로 간편해

한경희생활과학(대표 한경희)이 편리성과 효율성을 더한 대용량 제습기 '상쾌한(HAAN)'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17ℓ 대용량으로 사용 시간이 늘었고 소음이 적어 24시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자동 제습 시스템을 갖춰 버튼 하나로 최상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프리필터를 통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오토 스윙펜 기능으로 깨끗한 공기를 집안에 퍼뜨리는 공기청정기 역할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실내 빨래 건조를 위한 의류 건조 모드가 추가돼 장마철에도 빨래를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경희생활과학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9일부터 지마켓과 온라인 공식 쇼핑몰(www.iHAAN.com)을 통해 푸짐한 사은품이 제공되는 론칭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조혜인기자 [?]

뉴트리라이트, '제8회 대학생 영상 공모전'

뉴트리라이트가 7월 27일까지 '제8회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브랜드 스토리 ▲그것이 진짜 스피이다 ▲식물영양소 캠페인(파이토컬러 캠페인)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UCC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1장 분량의 기획서를 사전 제출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뉴트리라이트는 주제에 대한 ▲이해도 ▲창의성 ▲심실성을 기준으로 하는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학철기자

"임신 중 요오드, 부족해도 넘쳐도 안 돼"

김경원 서울대병원 교수
서울 국제 내분비학술대회 서
갑상선 기능 중요성 밝혀

김경원 서울대병원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서울 국제 내분비학술대회 2014'에서 "임신 중 산모의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산모나 태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 몸은 해조류나 어패류 등을 통해 섭취하는 요오드를 이용해 갑상선호르몬을 만든다. 임신을 하면 산모가 태아의 유일한 요오드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임신 전에 비해 산모의 요오드 필요량은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삼 면이 바다라 전통적으로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는 국가다. 또 외국에서 권장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어 임신한 경우에도 별도의 요오드 공급은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요오드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넘치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미숙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태아의 신경인지능력 발달에 좋지 않으며 과다 섭취할 경우에도 산모와 태아에게 여러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편이지만 과다 섭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인지가 특히 부족한 상황이다. 요오드 섭취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내분비학회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는 내분비 분야 대표 학술대회로 올해는 전세계 당뇨, 갑상선, 신경내분비, 골대사 분야 등 내분비 관련 의료진 및 과학자 약 1600여 명이 참석했다.

/황재용기자 [?]@metroseoul.co.kr

붉은 양파의 건강·멋이 한 곳에 – '치폴라로쏘' 인기

교촌에프앤비, 강남교자와 함께 론칭 종합외식기업 박차

교촌치킨으로 유명한 교촌에프앤비(대표 권원강)가 종합외식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론칭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치폴라로쏘(www.cipollarosso.com)'를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치폴라로쏘(Cipolla Rosso)는 이탈리아어로 '붉은 양파'를 뜻한다. 이 레스토랑은 붉은 양파의 강렬함과 독특함을 모티브로 해 정통 레스토랑에 모던 스타일을 가미했다. 현재 삼성점과 신세계 천안 등의 직영점 2곳과 가맹점 4곳을 운영중에 있다.

치폴라로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탈리안 요리'라는 주제로 거의 모든 메뉴에 붉은 양파를 사용한다. 붉은 양파에는 퀘르세틴과 안토사이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항암작용과 항산화작용이 뛰어나고 염과 혈관 질환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

또 살균·해독 작용,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마늘과 각종 채소, 오징어 먹물 도우 등이 함께 사용된다.

제품군에는 건강한 샐러드,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와 피자, 독특한 리조또와 라이스, 고급스러운 스테이크가 50여 종이 넘는 와인과 이곳의 풍미를 더해준다.

게다가 레드&블랙의 강렬한 컬러가 중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블링블링한 샹들리에 장식과 레드 커튼, 넓은 공간의 탁 트인 테이블 등이 고급스러우면서도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 드라마와 영화촬영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치폴라로쏘 삼성점은 5월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고객별로 맞춰 진행하고 있다. 인기 와인과 음료, 직접 만드는 에이드의 1+1행사를 비롯해 성년의 날을 맞아 95년생 방문자에게는 스위트 크랜베리 피자를 제공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펜타즈 호텔, 오픈 2주년 '페이스북 이벤트' 진행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사장 박동현)이 오픈 2주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펜타즈 페이스북 이벤트'를 실시한다.

가족과 함께 호텔의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라구뜨를 이용한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 한 후 URL을 호텔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등록하면 된다.

호텔은 우수후기를 남긴 고객을 선정한 후 호텔 스위트 룸 1박 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텔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라바' 유지컬 S석 입장권 2매와 라구뜨 할인 혜택, 2인 휘트니스 이용권 등으로 구성된 '라바 뮤지컬 패키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서편 DS 협성 엘리시안 입주자 모집공고 정정공고

※ 2014. 3. 28일 국제신문에 게재 [illegible] 정정합니다

1) 기존

주택형	동 호	층 별	세대수
59.79㎡D	[illegible]	층	[illegible]
		2~4층	9
		5~15층	22
		16층 이상	22
	101동 [illegible]	층	4
		2~5층	15
		6~15층	55
		16층 이상	29

2) 정정

주택형	동 호	층 별	세대수
59.79㎡D	[illegible]	층	[illegible]
		2~4층	9
		5~15층	33
		16층 이상	23
	101동 [illegible]	층	3
		2~4층	12
		5~15층	44
		16층 이상	38

헤드, '체지방률 감량' 캠페인

노출 많은 여름, "자율 운동 동기부여 기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헤드(HEAD)가 인바디와 함께 '체지방률 감량 캠페인'을 실시한다.

베이폿 출시 4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단순 체중 감량이 아닌 체지방률 감량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다이어트 문화를 제안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캠페인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헤드 매장에서 10만원 이상 제품(정상 제품에 한정)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장별로 선착순 50명에 한해 캠페인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을 한 고객들은 체지방률 감량 확인 기간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자신만의 운동법으로 체지방률을 4% 감량한 후 해당 매장을 재방문해 체지방률을 측정하면 된다. 성공 확인 기간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이며 4% 체지방률 감량에 성공한 고객들은 구매한 금액만큼 원하는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염수영 헤드 영업기획팀 부장은 "헤드는 고객들에게 건강한 라이프-다이어트 문화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특히 노출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에게 이번 캠페인이 자율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llegible]기자

◆이벤트 개요
- 대상 고객: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정상 제품 한정)
- 참가 신청 기간: 5월 19일 ~ 25일
- 성공 확인 기간: 6월 19일 ~ 21일
- 혜택: 구매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제품 증정
- 캠페인 문의: 1588-7667

◆참여 방법
- 전국의 헤드 매장 방문 후 헤드 제품 구매
- 인바디로 체지방률 측정 후 참가 신청서 작성
- 측정 기간 내 캠페인 참가한 매장을 재방문해 체지방률 감량 측정

'1타 2피'…실속 만점 듀얼 제품이 뜬다

담배부터 쥬스·도넛·화장품 등 다양하게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본 고민의 순간이다. 이 고민, '짬짜면' 같은 아이디어 상품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실속형 '듀얼' 제품들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KT&G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초슬림담배에 캡슐을 적용한 '에쎄 체인지'를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필터에 내장된 캡슐을 터뜨리면 기존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상쾌한 맛으로 변화한다. 이 제품은 지난 3월까지 11억6600만 개비가 판매돼 지난 5년간 출시된 신제품 중 같은 기간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캡슐담배시장의 1위 제품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일부 대학가 지역에선 14%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일만큼 20대 젊은층 흡연자들에게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KT&G는 일반 캡슐의 두 배 이상 크기인 '몬스터 캡슐'을 적용한 '보헴시가 쉐이크'와 한정판 '디스 아프리카 룰라 에디션' 등이 '2in1'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우유 '아침에쥬스 듀엣'은 오렌지와 포도 맛의 두 가지 주스를 한 병에 따로 담은 제품이다. 다양한 맛의 주스를 먹고 싶지만 둘 다 먹기에는 양이 많아 고민인 소비자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두 제품이 분리돼 있어 한쪽을 다 마시고 넣어 두어도 다른 한쪽은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다.

겉은 도넛처럼, 속은 파이처럼 생긴 던킨도너츠의 '뉴욕 도넛파이'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은 '크로넛'을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춰 개량한 제품으로 바삭함과 쫄깃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도넛 속에 32겹의 페스츄리 노우가 층층이 쌓여 있어 속은 파이처럼 부드럽지만 겉은 도넛과 같은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외모도 경쟁력'이라 생각하면서도 막상 이것저것 화장품을 챙겨 바르는 것이 귀찮은 남성들을 위한 '1석 2캅' 제품도 등장했다. 라네즈옴므 '듀얼액션 에센스 스틱'은 미백 에센스와 모공단력 에센스가 함께 구성된 일체형 케이스의 '2in1' 제품이다. 한 번의 펌핑으로 두 가지 에센스가 하나로 섞여 칙칙한 피부 톤과 탄력 잃은 모공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제품으로 '귀차니즘'에 빠진 남성들에게 인기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 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 걱정이 크죠."

정서희씨(58세 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이처럼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상형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상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선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번에는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함에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산업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년 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섬세한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랭키닷컴 제공(User Session Week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본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7년반의 반성이 지금의 날 만들었죠"

칸 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된 '끝까지 간다'의

김성훈 감독

29일 개봉될 영화 '끝까지 간다'는 치밀한 구성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모친상을 당한 형사 고건수(이선균)가 뺑소니 사고로 정체불명 남자의 시체를 어머니의 관에 은닉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정교하면서도 긴장감 있고 유쾌하게 그렸다.

이 영화는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출한 김성훈(43) 감독이 무려 7년 반 만에 내놓은 두번째 장편이다. 14일 개막한 제67회 칸 영화제의 감독주간에 초청되며 해외에서 먼저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김 감독이 칸으로 떠나기 하루 전 그를 만나 칸에 초청된 소감과 영화의 탄생 과정을 들었다.

◆ 칸 영화제에 초청받은 소감은.

어렸 적 시골에서 자라서 구경하러 가본 곳이라고는 자연농원이 전부였는데 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의 장에 초대받아서 영광이고 기쁘다. 그러나 낯선 언어가 들리는 곳이라 조금 두렵기도 하다.

◆ 평단에서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내가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노력 밖에 없더라. 이번 작품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 동안 삐자고 힘들었지만 진심으로 재미를 느끼면서 했기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예전엔 내가 재미없는데도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찍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런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개봉이 되지 않아 관객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 감정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한다.

◆ 이번 작품을 내놓기까지 무려 7년 반이 걸렸다. 전작의 흥행 실패가 뼈아팠던 것 같다.

자기 반성을 할 시간이 필요했다. 보통 사람들은 남탓 시대탓을 하지만 그러면 발전이 없다. 나 역시 거울로 민낯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부끄럽고 피하고 싶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은 영화를 찍고 싶었다. 7년 반이라는 시간은 나를 알아가는 시기였다. 물론 도망갈 곳도 없었다. 영화는 내게 놀이터이자 일터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만 했다.

◆ 시나리오의 탄생 과정은.

2008년 처음 구상했고 이듬해 초고를 썼다. 완성된 것은 2013년이다. 5년간 이 시나리오에만 매달렸다. 시작은 시신을 완벽하게 은닉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에서부터였다. 고민 끝에 시신이 들어갈 곳은 무덤이라고 생각했고, 잘못을 영원히 덮다물어 줄 사람으로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 후 이 상황을 가장 재미있게 묘사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주인공으로 가장 죄를 짓지 말아야하는 사람이라면 더 재밌겠다고 생각해 경찰을 설정했다.

◆ 영향을 준 감독이 있다면.

영향을 준 감독은 많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복수는 나의 것'을 좋아한다. 해외 감독으로는 코엔 형제가 있다. 영화 '드라이브'도 좋아하는데 여기에 출연한 라이언 고슬링이 이번에 '로스트 리버'의 감독 자격으로 칸에 초청됐더라. 만나고 싶지만 말이 안 통하니 영화제만 즐기고 오려고 한다. 하하하.

◆ 전작은 코미디물이었는데 이번엔 범죄액션물이다.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때 그 때 재미있는 것이 눈에 보이면 하는 편이다. 다만 유머를 곁들인 이번 영화를 하면서 내가 역시 코미디를 좋아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 심각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유머가 인상적이다.

극을 저절하고 진지하게만 진행하면 불편하게 느끼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웃길 수 있는 상황이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톤의 매너가 중요했다. 사실감 없는 코미디로 흘러가지 않도록 했다.

◆ 이선균의 연기가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장르 영화긴 하지만 주인공으로 사실적인 연기를 하는 배우를 원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출연한 이선균을 보면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그 옷을 입은 것 같은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생각했다. 이번에 함께 해보니 더 대단한 배우라서 놀랐다. 신마다 다른 세밀한 표정을 지어 고건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다.

◆ 다음에는 어떤 영화를 선보이고 싶나.

더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다. 지금과 비슷한 영화를 찍어야 할 지, 다른 재미있는 것을 해야할 지, 아니면 전에 써 놓은 걸 시나리오를 끄집어내야 할 지는 모르겠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작은드리마을) 디자인/최송이

한국 영화인 칸 종횡무진

현지 언론 관심, 전도연·송혜교 배두나·김새론·송새벽 레드카펫

한국 영화인들이 제67회 칸 영화제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며 눈길을 끈다.

이번 영화제에 경쟁 부문 심사위원 초청된 전도연의 일거수일투족에 현지 언론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영화 전문지 버라이어티는 칸 데일리 특별판에 전도연의 자기작 무뢰한 출연을 독점이라는 단어를 붙여 상세하게 보도했다. 버라이어티는 "심사위원 전도연이 무뢰한 으로 스릴러에 도전한다"고 밝히며 개봉을 앞둔 영화 '해무' 의 기억 도 언급했다.

앞서 전도연은 14일 열린 경쟁 부문 심사위원 기자회견에서도 현지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또 현지 최고급 호텔 중 하나인 마제스틱 호텔에 머무는 등 주최측으로부터 특급 대우를 받고 있다.

전도연은 칸 영화제에서 2007년 '밀양' 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이후 2010년 임상수 감독의 '하녀' 가 경쟁 부문에 진출해 칸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송혜교는 17일 프랑스 칸 마제스틱 호텔에서 열린 중국 영화 '태평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외신 기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자리에 오우삼 감독과 이시아 톱스타인 장쯔이 금성무·나가시와 마사미 등과 함께 자리한 송혜교는 "오우삼 감독은 아버지 같은 분이고 금성무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라고 밝혔다.

전도연 /AFP 연합뉴스

미국 영화 전문지 스크린 인터내셔널의 칸 데일리 특별판 표지는 송혜교 등 주연배우들의 얼굴이 담긴 '태평륜' 포스터가 장식했다.

18일에는 감독주간에 초청된 '끝까지 간다' 가 현지에서 첫 상영 돼 이목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성훈 감독이 참석했다.

19일에는 주목할만한 시선에 초청된 '도희야' 의 월드 프리미어 시사회가 열려 주연배우인 배두나와 김새론 송새벽이 칸을 달굴 예정이다. 배두나는 개막 다음날인 15일 출국했으며 김새론과 송새벽은 18일 프랑스행 비행기에 올랐다.

/박선영기자 sun0427@metroseoul.co.kr

여배우 치마 속 난입 미국 드라마 '어글리 베티' 의 여주인공으로 유명한 아메리카 페레라가 제67회 칸 영화제에서 봉변을 당했다. 17일(현지시간)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2' 시사회 레드카펫에서 페레라의 치마 속으로 한 남성이 뛰어들었다. 우크라이나 출신 리포터 비탈리 세디우크로 밝혀진 이 남성은 치마 속에 머리를 넣넣지는 성공했으나 바로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 /AFP 연합뉴스

▶ 윌 스미스에게 키스했다가 맞은 리포터군요. 장난이 짓궂네요 /박선영기자

고질라

'고질라', 19금 '인간중독' 잡았다

3일 동안 37만 동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고질라' 가 송승헌 주연의 '인간중독' 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고질라' 는 17일 610개 스크린에서 상영돼 19만236명을 모았다. 개봉 3일 만에 누적 관객 수 36만7062명을 기록했다.

'고질라' 는 1954년 인간들이 깨운 존재로 인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 시작되는 일들을 그린 작품이다. 1954년 일본의 이시로 혼다 감독이 연출한 원작 '고질라' 1998년 미국의 롤랜 에머리히 감독의 '고질라' 에 이어 다시 리메이크됐다.

최근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에 캐스팅돼 화제를 모은 애런 존슨과 엘리자베스 올슨을 비롯해 브라이언 크랜스톤, 줄리엣 비노쉬, 와타나베 켄 등이 출연한다.

'인간중독' 은 18만3791명을 기록해 박스오피스 1위에서 2위로 내려 앉았다. 누적 관객 수는 51만1628명이다.

송승헌이 '정사' (1998)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2003)의 각본을 쓰고, '음란서생' (2006) '방자전' (2010)을 연출한 김대우 감독과 만나 화제적인 멜로 연기를 펼친 작품이다.

3~5위는 '트랜센던스' (13만792명) '표적' (11만8473명)이 4위, '역린' (8만6080명) 순으로 집계됐다. /박선영기자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개막

서울국제사랑영화제(SIAFF)가 22~31일 필름포럼과 메가박스 신촌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다. 2011년까지 서울기독교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올해 신앙인뿐 아니라 일반 관객도 공감할 수 있도록 '사랑' 영화제로 의미를 확장했다.

'세상에 숨겨진 진실한 사랑을 찾아냅니다' 라는 모토로 사랑 안에서 삶과 다양한 현실을 담은 영화를 상영한다.

또 국제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경쟁 부문 작품의 상영 편수와 상영관을 늘렸다. 비경쟁 부문의 작품은 영미권 뿐 아니라 동유럽·남미·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영화를 선정했다.

BASED ON A TRUE STORY
Life feels good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개막작 '라이프 필 굿'

개막작으로는 폴란드 영화 '라이프 필스 굿' 이 선정됐다. 편견과 장애를 극복해가는 한 뇌성마비 청년의 실화를 소재로 했다.

24일 필름포럼에서 열릴 '시네 토크' 에 마시에이 피에프르지카 감독과 배우인 카타르지나 자와즈카가 참석해 한국 관객과 만난다. /박선영기자

엑소-K(왼쪽)와 엑소-M. 오른쪽 사진 맨 왼쪽이 크리스. /SM엔터테인먼트

역풍 불구 엑소 바람 여전히 '강풍'

크리스 사태 후 빠르게 결속…한·중 차트 동시 석권

그룹 엑소가 악재 속에서도 인기 돌풍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엑소-K는 17일 열린 MBC '쇼!음악중심'과 18일 SBS '인기가요'에서 새 앨범 타이틀곡 '중독'으로 컴백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 MBC뮤직 '쇼챔피언', 엠넷 '엠카운트다운'에 이어 지상파 음악프로그램까지 모두 1위를 휩쓸었다.

또 중국 활동 그룹인 엑소-M은 같은 날 오후 생방송된 중국 최초의 순위제 음악 프로그램인 CCTV '글로벌 중문음악 방상방'에서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중독'으로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 한 그룹이 한국과 중국에서 분리해 활동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같은날 각국 음악 프로그램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최초다.

엑소의 인기는 아시아에 그치지 않고 미국 빌보드의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한국 남자 가수 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위상을 과시했다.

최근 중국인 멤버 크리스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활동을 중단하면서 충격을 줬지만 엑소는 빠르게 결속을 다지며 크게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다.

엑소-M은 중국 인터넷 매체 텐센트오락과 인터뷰에서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크리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6인조인 엑소-M에는 크리스를 포함해 4명의 중국인 멤버가 포함돼 있다.

텐센트오락에 따르면 멤버 루한은 "멤버들 모두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았다"며 "오랜 꿈이었던 콘서트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 속상하다"고 토로했으며 타오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월드투어를 앞두고 어느 누구와 상의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엑소는 23~2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멤버 시우민은 "이런 일을 겪게 돼 너무 당혹스럽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11명의 멤버는 단합해서 팬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콘서트 준비에 전념하겠다. 위 아 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크리스는 지난 16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으로 자기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빈다는 뜻) 잘 지내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있길 바라며 여러분이 더 좋아지길 바란다. 나를 지지해주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그런 의견에 감사하다. 우미만은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중국어로 올렸다.

/유순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티아라 지연 발레리나 변신

색다른 매력 20일 솔로 데뷔

솔로 데뷔를 앞둔 지연(사진)이 새로운 이미지를 공개하고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개된 이미지 속에서 지연은 지금까지 이어온 섹시한 이미지 대신 귀엽고 청순한 모습을 보였다. 소녀 감성이 돋보이는 발레복을 입은 지연은 순수한 느낌을 강조해 앨범 콘셉트에 기대를 모았다.

지연은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반대로 빨리 무대에 오르고 싶은 마음도 크다"며 "무대에서 잘한다는 이야기도 좋지만 열심히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지연의 솔로 타이틀곡 '1분 1초'는 가요계 히트메이커 이단옆차기의 작품으로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다. 지연은 20일 첫 솔로 앨범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양성운기자 ysw@

'무한도전' 날카로운 정치풍자

단일화-철새 정치안 담아 시청자 투표 첫날 3만여명

MBC '무한도전'이 제대로 된 정치풍자를 선보였다.

17일 '무한도전'은 향후 10년을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를 뽑는 '선택 2014' 특집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은 사전 여론조사 발표, 지지율에 따른 후보 단일화 과정과 최종 토론회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발표된 각 후보의 공약과 선호도 합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44% 지지율의 노홍철이 선두로 나섰다. 유재석은 40%를 기록하며 2위에 자리했다. 3%의 저조한 성적을 나타낸 박명수는 자신의 명분인 '유재석 끌어내리기'와 노홍철의 공약인 '무한도전 멤버들의 사생활 공개' 사이에서 갈등했다. 박명수는 노홍철을 찾아가 "내 사생활을 보호해준다는 내용을 문서화 해주면 지지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결렬됐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재석과 단일화를 선택했다. 정형돈은 7%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준하(4%), 하하(2%)와 단일화에 성공해 "절대 다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막판 역전극을 노렸다. 하지만 이 구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최종 토론회에서 유재석이 단일화 이전에 만든 박명수를 포함한 타 후보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공개하자 박명수는 지지를 철회하고 정형돈에게 돌아서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철새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무한도전' 멤버들의 후보 단일화 과정은 이익에 따라 쉽게 이합집산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또 세 명으로 압축된 후보들 사이에선 네거티브 전략이 난무해 공약보다 상대편 공격이 앞서는 대한민국 정치판을 재연했다.

'무한도전'의 정치 풍자는 브라운관 밖에서 진행된 현장 투표에서 빛을 발했다. '선택 2014' 본 투표는 오는 22일 전국 주요 10개 도시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사전 투표는 서울 2개 투표소에서 17·18일 이틀 동안 진행됐다. '무한도전' 측 집계에 따르면 17일 하루 사전 투표에선 총 3만4000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한도전'의 차세대 리더를 뽑는 선거가 이토록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열기가 6·4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어지리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론직설
유 병 철
<언론인>

4·16 비극이 일어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다. 지난 4월의 잔인함을 그야말로 잔인하게 보냈다. 또한 가장 훈훈해야할 5월 가정의 달도 온 국민이 비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 참사를 수없이 겪었지만 지금처럼 우리 국민이 트라우마에 시달린 적은 없었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사고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련의 과정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자명해진다. 우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추상같은 엄벌이 이뤄져야 마땅하고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물론 사회안전망을 빈틈없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인사정책에서 오는 난맥상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 국민사이에 만연해 있는 '설마'나 '괜찮아'하는 안일한 안전의식 개조운동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먼저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갈 개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유가족을 중심으로 사후수습에 새로운 선례를 남길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충격의 쇼크에서 깨어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처럼 망연자실 상태가 지속된다면 예기치 못할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 경제가 걱정이다. 이미 세월호 참사이후 각종행사와 모임이 취소되면서 소비가 얼어붙었다. 쉽게 경제할동아 크게 위축되어 올 성장률은 0.1~0.2%포인트를 하향조정해야 할 판이다. 이는 모처럼 불씨를 지폈던 경기회복에 찬물이 되고 특히 서민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차분한 마음으로 평상심을 되찾아야 한다. 어찌 보면 이러한 자세가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예의이다. 미국이 끔찍한 9·11테러 직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나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 같은 선례를 기억해야한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수습에 역량을 결집해야할 것이다. 특히 좌편향 불순세력들의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감성보다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성숙사회의 길목에 들어설 수 있다.

민생경제 대책 소홀함 없어야

뉴스룸에서
김 하 성
<부국장>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실종자중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늠길이 없다. 안전불감증, 무능과 무책임, 독버섯처럼 번진 부정부패, 인간성 상실, 악성 유언비어 난무…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번처럼 전국적 애도와 분노가 표출되면서 집단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린 적도 없었다. 쉽게 아물지 않을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참사 이후 각종 행사와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여행, 운송, 숙박 등 내수경제가 얼어 붙고 있다.

최근 발표된 몇몇 보고서는 우리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레저·요식·운송업의 신용카드 승인액이 보름새 감소되거나 증가세가 대폭 둔화됐다고 발표했다. 에프엔가이드 보고서도 주요 내수기업 56곳 중 45곳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달 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렵고 서민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요즘 택시기사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죽을맛이라고 하소연한다. 어뜨리 발길이 뚝 끊어진 지역경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같은 상황을 인식, 경제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이후 경제적 고통이 생계형 자영업자와 서민층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과 운송, 숙박업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각 경제 주체들도 슬픔을 딛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또한 선제적 대응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애도의 마음은 간직하되 일상으로 돌아가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더 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여론이 점차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물론 남은 실종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에 올 수 있도록 구조와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포토프리즘 너무너무 시원해요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대를 찾은 한 어린이가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27도 까지 올라간 이 날 분수대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를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손진영기자 son@

먼저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인문학 공부가 정말 절실하더라구요. 먼저 인간이 되지 않고 뭘 하겠어요." 평생교육의 현장에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다. 탐욕스러운 정치인, 야비한 검사, 노동자들을 짓밟는 경영자 등은 모두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전문가들이다. 이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은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고통이 확산되고 병이 깊어간다.

세계적인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에서 인문학이 결코 내놓으면 안 되는 교육항목으로 "노동의 역사"를 꼽고 있다. 인문학과 노동의 역사가 뭔 관계냐고 고개를 갸우뚱 할 수 있다. 인문학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 존엄을 지켜내는 성찰이라고 한다면, 노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온 존재의 가치를 깨우치는 것은 핵심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불온시 된다. 마사 누스바움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멸시하는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는다.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의 원제목은 <이익을 앞세우지 말라(Not for Profit)>라는 걸 떠올리면, 그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파악된다.

세월호 참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가운데 중심에는 사람보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모신 사회의 비극이라는 점이다. 자본의 탐욕과 지배가 인간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희생시키는 논리와 현실의 끝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이번에 더더욱 절감하고 있다. 돈으로 환산되는 이익이 모든 가치와 판단의 본질이 되어버리는 순간, 어떤 처참한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제 더는 달리 이론(異論)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이토록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 대부분은 인간의 생명과 권리에 대한 멸시의 노동의 착취, 무한경쟁으로 몰아가는 생산력 주의와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너무도 많은 희생을 치른 뒤에 다시 절감하게 되는 진실이지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나지 않았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사회의 행복을 위한 첫 조건이다. 더는 누구도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그로써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인간으로 등장한 지 무려 250만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인간으로 진화하는 길이 멀고도 멀었나 보다.

영업재개 카드 3사, 기본을 지켜라

기자수첩
백 아 란
<경제산업부 기자>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흔히 그거야 기본이지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기본을 지킴은 고객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난 17일 영업을 재개한 서울 종로구 국민카드 본사에는 '고객 정보를 최고로 삼겠다'는 결의문이 적혀있다.

올 초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석달간 영업이 정지됐던 KB국민, 롯데, 농협카드사는 이날 0시부터 신규 고객 모집과 신규 현금서비스 등 신용 대출 영업에 들어갔다.

앞서 영업정지 기간에 카드3사는 약 160만명이 넘는 고객이 이탈하고, 1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어 신규 카드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업 재개가 시장 점유율 확보로 바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녹록지 않은 카드 시장 환경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

실제 유출됐던 1억여건의 고객정보 가운데 8000여만건이 대출 중개업자에게 흘러간 사실이 검찰수사에 드러난데다 여타 카드사의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출된 정보들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마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등 '고객신뢰회복'을 전면에 내세워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영업재개가 모든 것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신뢰회복,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ATM, 바르샤·레알 시대 끝냈다

프리메라리가 18년 만에 우승 감격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하 ATM)가 18년 만에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정상에 올랐다.

ATM은 18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에서 열린 2013~2014 프리메라리가 최종전에서 FC바르셀로나와 1-1로 비기며 승점 3점차로 우승을 차지했다. ATM과 리그 첫 대결에서도 무승부를 거뒀던 바르셀로나는 이날 승리를 거두면 승점 동점이 되면서 승자승 원칙으로 우승까지 할 수 있었지만 뒷심이 부족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스페인국왕컵 우승이 무산된 데 이어 2008년 이후 처음 무관으로 시즌을 마쳤다. 헤라르도 마르티노 감독은 경기 후 사퇴했다.

반면 ATM은 전통의 강호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끈질긴 추격에도 끝끝 정상을 지키며 1995~1996시즌 이후 처음이자 통산 10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 팀이 프리메라리가에서 우승한 것은 2004년 발렌시아 이후 10년 만이다.

또 25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승리할 경우 ATM은 올 시즌 세계 클럽 축구에서 가장 큰 2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게 된다.

이날 리그 최종전에서 승기는 바르셀로나가 잡았다. 알렉시스 산체스가 전반 34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리오넬 메시가 기습으로 트래핑한 볼을 잡아 골로 마무리했다.

ATM은 간판 스트라이커 디에고 코스타가 전반 16분 부상으로 교체되고, 미드필더 아르다 투란 마저 전반 40분 엉덩이 통증으로 빠지며 수세에 몰렸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후반 들어 나비는 벌아기 인답이 날카로운 슛으로 상대 골문을 두드렸고, 결국 후반 4분 만에 수비수 디에고 고딘이 코너킥을 헤딩골로 연결시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올 시즌 ATM과 5차례 맞대결에서 무득점했던 메시는 이날도 침묵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고딘이 동점골을 성공시킨 후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AP 뉴시스

'짠물' 커쇼 7실점 2회 강판

다저스 에이스 부진 충격

다저스 마운드의 기둥 클레이튼 커쇼(사진)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는 18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1⅔이닝 6피안타 2볼넷 7실점으로 조기 강판됐다.

1회를 깔끔하게 삼자범퇴로 처리한 커쇼는 2회 선두타자부터 볼넷으로 내보냈고, 여후 소나기 연타를 맞으며 대량 실점했다. 볼넷 2개, 3루타만 3개를 허용하는 등 커쇼의 이력에서 좀처럼 볼 수 없던 이닝이 펼쳐졌다. 심지어 보크까지 범한 커쇼는 2회를 채 끝내지 못한 채 제이미 라이트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커쇼의 방어율은 1.74에서 4.43으로 치솟았다.

커쇼가 무너지자 다저스도 패했다. 다저스는 7회에만 골드슈미트에게 석 점 홈런을 허용하는 등 대량 실점하며 추격 의지를 잃었다. 다저스는 7-18로 완패했다.

/유순호기자

추신수가 8회 두 번째 삼진을 당하고 아쉬운게 타석에서 물러나고 있다. /AP 뉴시스

추신수 세 경기 만에 안타

프로야구 전적 17일

■잠실

NC	[illegible]	210	000	[illegible]
두산	000	010	102	4

[illegible]

■대전

SK	100	010	000	2
한화	200	002	10X	5

[illegible]

■광주

삼성	001	000	001	[illegible]
KIA	101	000	000	2

[illegible]

■사직

넥센	000	011	301	6
롯데	305	201	01X	11

[illegible]

프로축구 전적 18일

서울	1	0	[illegible]

[illegible]

추신수(32)가 지옥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의 3번 타자로 출전해 잠들었던 방망이를 깨웠다.

추신수는 18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프린스 필더가 목 디스크 증세로 결장하면서 붙박이 1번 타자인 추신수는 3번에 배치됐다.

세 경기 만에 안타를 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305에서 0.303으로, 출루율은 0.431에서 0.427로 각각 떨어졌다. 추신수는 6회 2사 후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맞은 세 번째 타석에서 좌익수 앞 안타를 쳤다.

최근 심판들의 오락가락하는 스트라이크 판정으로 타격감을 잃은 추신수는 이날도 두 차례나 삼진을 당하며 최근 10경기 연속 삼진을 기록했다. 전날 에이스 다르빗슈 유의 호투에도 0-2로 진 텍사스는 이날도 2-4로 패해 4연패에 빠졌다.

/유순호기자

제임스 한·박희영 동반우승 조준

PGA·LPGA 3R 선두 추격

17일 열린 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박희영이 18번홀 버디샷을 놓친 후 안타까워하고 있다. /AP 뉴시스

재미교포 제임스 한(33·한국이름 한재웅)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우승에 바짝 다가섰다.

제임스 한은 18일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포시즌스 리조트 TPC에서 열린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5개홀 연속 버디를 잡으며 9언더파 65타를 적어냈다. 중간합계 9언더파 201타를 친 제임스 한은 공동 선두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 브렌든 토드(미국·이상 10언더파 200타)보다 1타 뒤진 공동 3위에 올라섰다.

2012년 PGA 투어 2부 투어에서 뛰었던 제임스 한은 지난해 PGA 투어에 진출했고 아직 우승은 하지 못했다.

또다른 재미교포 존 허(24)도 4타를 줄이며 공동 13위(6언더파 204타)에 올라 마지막 날 역전 우승에 도전한다.

같은날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의 킹스밀 리조트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는 박희영(25·하나금융그룹)이 선두에 3타 뒤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던 박희영은 중간합계 10언더파 203타를 쳐 리젯 살라스(미국·13언더파 200타)에게 선두를 내줬다. 그러나 살라스를 3타차로 쫓고 있어 역전 우승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프로 데뷔 후 LPGA 투어 두 번째 우승을 노리는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는 중간합계 8언더파 205타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리디아 고는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출전하지 않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세계랭킹 1위에 오를 수 있다.

/유순호기자

SNS의 관계 맺음

임경선의 모놀로그

이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살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였다. 잘 안 맞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을 받을 때면 소속감도 못 느끼고 내가 유별난 게 아닐까 침울했던 적도 있었다. 지금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가만히 앉아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인간 군상들을 만나면서 '나만 이상한 건 아니구나'라는 위로도 얻곤 했다.

지난 삼 년간 나는 트위터라는 SNS를 일상적으로 애용해왔다. 다양한 SNS 중에 트위터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결성과 개방성 그리고 자율성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140자 이내로 정치적 주장이나 외로움이나 하소연이나 자기자랑 등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제멋대로 한다. 구독하다가 나 키면 반응을 보이고 그러다가 온라인 대화가 오가기도 한다. 대화가 중간에 끊어져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만다.

글에 반응이 없더라도 개의치 않고 자기 목소리를 이어간다. 또한 누구의 글을 구독할지에 대한 부분도 다른 SNS에 비해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라 연결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상처받는 일도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익명도 가능해 소위 '계급장'을 떼고 같은 눈높이로 토론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위터 선호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들, 그것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SNS를 통한 인간관계망은 구분하자면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원래부터 오프라인에서 알던 사람들. 둘째, SNS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이지만 나와 가치관과 관점, 취향이 엇비슷해 금세 말이 통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셋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편 가르기와 경쟁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게 하는 건강한 자극을 주는 사람들.

나 역시도 익숙한 관계에 안주하며 낯설거나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해 소통의 가능성을 쉽게 포기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나 호기심을 갖고 부딪쳐보고 그 타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사실상 SNS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효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칼럼니스트 salicazwomen@gmail.com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ju4000.com

부동산영업직 도전해도 될까 60대까지는 직장생활 하세요

hymin 남자 87년 11월 8일 점심경

Q 군대 제대 후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 퍼졌었습니다. 늘 안 한 일도 막상 하면 잘 됩니다. 친구가 부동산 이벤트사에 다니는데 저와 함께 영업활동을 하다가 기회가 되면 같이 독립하자는데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A 현침살(懸針殺: 날카로운 기운을 나타냄)은 기술과 역마의 기운이 있어 영업을 하면 잔잔하게 큰돈 벌 욕심이 많아 작은 돈은 쌓게 됩니다. 직업과 성미는 연관 관계가 있어 서로 갖추어야 하는데 자의(字意)상 현재는 직종 건축물과 관계되는 부동산 인테리어 일이 인연이 있습니다. 부동산업 창작은 당장 하는 말고는 안하게 되어 재물 운은 모태방상으로 사묘절(死墓絶) 지로 가고 있군요. 또한 명조(사주구조)에는 기토(己土)가 추운겨울에 태어났으며 한 점 수기(水氣)가 없으니 전답이 메마른 형상으로 어쩌니 감정이 격해지면 앞뒤를 재지 않고 울분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아 창업보다는 60대 후반까지는 직장생활을 하세요.

올해 악재많아 귀농 생각중인데 2016년 계획 잡고 준비하세요

악재그만(지) 남자 53년 1월 21일 오전7시

Q 올해 들어 악재가 끼었는지 자꾸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53년 1월생 남자로 귀농을 준비하는데 어떠한지요? 상담 드립니다.

A 노후에 귀농을 선호하는 요즘추세이므로 귀농하여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지 그냥 하지만 누구나 노력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운이 갖추어야 되겠지요. 원류가 풍부한 샘터와 같이 오랜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아 환경에서도 잘 견디며 모음 되어 있는 분이므로 자연히 만인의 신망을 얻고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장점이 훌륭합니다. 귀농이 노후에 전원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니 도시생활보다도 많이 부지런해야 하는 게 농사입니다. 장점이 있기에 흉살(凶殺)을 이겨낼 수 있으니 책저 나가며 귀농은 준비하십시오. 2016년이 지나야 구체적으로 계획이 마련되니 시기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

5/19 月 해뜨는 시각 05:20 해지는 시각 19:3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5.co.kr

자외선 노출이 심하면 피부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한 번에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두 시간 간격으로 자주 바르는 것이 피부암 예방에 좋습니다.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www.iyuhs.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3	2	9
	6			3		8		4
	2		1					
3				4				
6			8		7			2
				2				6
					5		8	
5		4		6			7	
8	1	9					4	

	8					5	6	
		7	8	6			2	3
2							7	
1			9				5	
			2		1			
	2				5			4
	4							6
6	3			7	4	2		
	1	8					4	

스도쿠 정답

[illegible]

문제 제공~ 보누스
헨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북플리오스 제공)

신점[神占] 운세 5월 19일(음 4월 21일) 김학수 인생상담

48년생 떠난 버스는 멀리 있어라. **60년생** 모험에 기면 황당하는 사람 많다. **72년생** 심이가 강하게 나오면 맞대응 말라. **84년생** 직장인은 큰 성과에 박수가 쏟아진다.

49년생 쪼그라든 집안에 빛이 든다. **61년생** 사람 얻으려면 마음이 돈 활짝 열어라. **73년생** 변화보단 지키는 게 이롭니. **85년생** 보호자와 상사가 되니 처진하구나.

50년생 환자는 회관은 시기상조~. **62년생** 생각대로 일이 풀려 힘이 솟는다. **74년생** 고비이다 직장 바꾸면 신뢰만 추락~. **86년생** 연인이 더욱 뛰어 행복하다.

51년생 투자한 곳에 변사이익 생긴다. **63년생** 이상은 접고 현실에 눈 떠라. **75년생** 일마다 장애물이 있어 뚝심이 필요하다. **87년생** 상사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하라.

52년생 주관일 좌지우지할 생각 버려라. **64년생** 마음을 열면 구원은 온다. **76년생** 어설픈 일을 심리에 손대 패지 말라. **88년생** 권실은 설직도 받고도 웃지 못하는 격이다.

53년생 동쪽으로 움직이면 길하다. **65년생** 금융투자는 한 번 더 생각한 다음 결정하라. **77년생** 직장인은 유무로 선도한다. **89년생** 적당한 욕심 자기발전에 약~.

42년생 비밀이 새어나지 않도록 조심~. **54년생** 방심하면 이성이 흔들린다. **66년생** 좋은 일에 어음이 거론되어 아싸~. **78년생** 악재로 고생한 사람에겐 봄이 온다.

43년생 주변의견 따르는 게 이롭다. **55년생** 고집 계속 부리면 사면초가 자초~. **67년생** 과거는 잊고 새 기분으로 새 출발한다. **79년생** 예상 좋을 수는 없으니 마음 비워라.

44년생 남의 경사에 찬물 끼얹지 말라. **56년생** 텅질처럼 은 혁번해도 소용없다. **68년생**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니 자신을 혁신하라. **80년생** 뜻밖의 경사 생긴다.

45년생 생각도 못한 선물 생긴다. **57년생** 일이 꼬일 땐 고정관념 버려라. **69년생** 문서일은 어렵게 성사가 된다. **81년생** 직장문제로 작은 고민이 생길 듯.

46년생 유식으로 권한 팔 조심. **58년생** 남의 실패를 거울삼으면 좋다. **70년생** 더 큰 세상을 보도록 노력하라. **82년생** 귀인을 만나니 해묵은 근심은 사라진다.

47년생 고집 부리면 잘못된 선택한다. **59년생** 선행이 알려져 존경받는다. **71년생** 시기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미지 관리 잘 하라. **83년생** 어려울 때 친구 덕을 본다.

어느
부드러운 봄날
처음처럼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